

삼육대 약술형논술

국어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국어·문항 1	3
국어·문항 2	5
2026학년도 자연계열	7
국어·문항 1	7
국어·문항 2	9
2025학년도 인문계열	10
국어·문항 1	10
국어·문항 2	12
국어·문항 3	14
2025학년도 자연계열	16
국어·문항 1	16
국어·문항 2	18
2024학년도 기출(계열 미표기)	20
국어·문항 1	20
국어·문항 2	22
국어·문항 3	23
국어·문항 4	25

2026학년도 인문계열

국어 · 문항 1

※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식의 축사연설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학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35년 넘게 교직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50년 넘게 인생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얻은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비로소 세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제한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세계 137개국 중 57위이고, 이는 OECD 전체 국가 중 끝에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누가 봐도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타인의 말에 휘둘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이 소중한 인생을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는 관심과 노력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실패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의지를 굳건히 다져 줄 테니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은 생동감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며 이상으로 축사를 마칩니다.

1. <보기>는 제시문에 쓰인 설득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시오. [10점]

<보기>

화자는 자신이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성적 설득 전략’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미래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로 청중의 욕망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된다.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5점]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5점]

예시 답안

- 축사 연설에 적용된 설득 전략에 대한 각 분석이 연설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문제이다.
-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에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청자가 자신을 인성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이 연설에서 교장 선생님은 “35년 넘게 교직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50년 넘게 인생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부분에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통계 자료나 보고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설에서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세계 137개국 중 57위이고, 이는 OECD 전체 국가 중 끝에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마지막 ‘감성적 설득 전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는 관심과 노력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라고 하여 청중의 욕망에 기대어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첫 어절: 35년	마지막 어절: 얻었습니다	5점
㉡	첫 어절: 최근	마지막 어절: 합니다	5점

국어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고 안정 지향적이다.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무의사 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한다.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첫째는 폭력의 사용이다. 이 수단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을 사용해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권력의 행사로,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하거나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 버리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프레이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보기>는 제시문을 요약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각각 쓰시오. [10점]

<보기>

-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는 지배 엘리트들의 (㉠)(이)나 선호가 반영된다.
- 무의사 결정론에 따르면, 지배 엘리트들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의제로 통과시키는 것에 실패하면 그들은 (㉡)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축소한다.
-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이)다. 이 수단은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프레이가 제시한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에서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조건>

- ㉠, ㉢은 2어절로, ㉡은 3어절로, ㉣은 4어절로 쓰시오.

㉠ _____ [2점]

㉡ _____ [3점]

㉢ _____ [2점]

㉣ _____ [3점]

■ 예시 답안

- 신엘리트론에 관한 내용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에 맞게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무의사 결정을 통해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자신들의 의견만 반영시켜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과 수단(폭력의 사용, 권력의 행사,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은 의제 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의제만 통과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제가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 소수의 지배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이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이유는 무의사 결정 수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 프레이는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아래의 답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므로 답안과 같이 그대로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 단, 문제에 단어/어절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제외한 조사를 생략/추가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 예) “폭력의 사용” → 정답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
 “폭력의사용” → 정답 (띄어쓰기 오류)
 “폭력을 사용” → 오답 (정답에 없는 조사 사용)
 “폭력 사용” → 오답 (조사 생략)
 “복력의 사용” → 오답 (오타자)
- 각 답안에 부분 점수는 허용하지 않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지배적 가치관	2점
㉡	정책 결정 과정	3점
㉢	폭력의 사용	2점
㉣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3점

2026학년도 자연계열

국어 · 문항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헛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쥘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찰랑찰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찰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1. <보기>는 제시문을 감상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0점]

<보기>

백석 시인은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담아냈다.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의지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 시인은 슬픔과 한탄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시어 (㉠)을/를 사용하여 시상의 전환을 도모하였으며, (㉡)(이)라는 비교 표현에서는 삶을 주관하는 ‘운명’이나 ‘숙명’의 힘이 절대적임을 느끼고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시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화된 감정을 시어 (㉢)(으)로 표현하고, 상징적 시어 갈매나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연한 자세를 표상하였다.

<조건>

- ㉠은 3음절로, ㉡은 2음절로 쓰시오.
- ㉢은 5어절로 쓰되, 명사로 끝맺음하십시오.

㉠ _____ [3점]

㉡ _____ [4점]

㉢ _____ [3점]

■ 예시 답안

-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와 <조건>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제시문에 나온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상의 전개에 따른 시구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은 시상의 전환을 꾀하는 시어로, ‘그러나’가 적합하다. 이 시는 ‘그러나’를 기점으로 절망의 극한에 몰린 화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 ㉡은 삶을 주관하는 ‘운명’이나 ‘숙명’의 힘이 절대적임을 느끼고 삶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5어절로 된 비교 표현으로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이 시구에는 ‘보다’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여 초월적인 존재를 드러낸다. ㉢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화된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로는 ‘양금’이 적합하다. 양금이란 시어는 시간을 뜻하는 ‘차츰’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면서 정화된 감정을 나타낸다.

■ 채점 기준

- ㉠-㉢의 답을 각각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그러나	3점
㉡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4점
㉢	양금	3점

국어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의어는 크게 등급 반의어, 상보 반의어, 관계 반의어 등으로 나뉜다. ㉠등급 반의어는 극과 극의 두 대립적 축을 상정하여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상태, 즉 등급의 정도가 존재하며 비교 표현에도 쓰일 수 있다. 등급 반의어의 경우,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은 상대 반의어의 부정 진술을 함의(含意)한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보 반의어는 두 단어가 서로 배타적 반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이다. 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를 이루는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이 상대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부정 진술을 함의하며, 등급 반의어와는 달리 그 역도 성립한다. 상보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 어휘는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며, 비교 표현으로도 쓰일 수 없다.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성립하면 반대편의 단어도 암묵적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단어 쌍을 가리킨다. 관계 반의어는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2. 제시문은 반의어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의 반의어 쌍 가운데 ㉠-㉢에 속하는 것을 모두 찾아 **번호로** 각각 쓰시오. [10점]

<보기>

- | | |
|--------------|---------|
| ① 가깝다-멀다 | ② 형-아우 |
| ③ 합격-불합격 | ④ 사다-팔다 |
| ⑤ 게으르다-부지런하다 | ⑥ 홀수-짝수 |

㉠ _____ [3점]

㉡ _____ [3점]

㉢ _____ [4점]

■ 예시 답안

- 반의어는 단어들이 나타내는 대립적 의미의 특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 등급 반의어는 두 개의 대립축 사이에 많은 등급이 존재하므로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보기의 반의어 쌍 중에서는 ① ‘가깝다-멀다’와 ⑤ ‘게으르다-부지런하다’가 등급 반의어에 속한다.
- 상보 반의어는 두 단어가 서로 배타적 반의 관계에 있다. 즉,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고 비교 표현으로도 쓸 수 없다. 보기의 반의어 쌍 중에서는 ③ ‘합격-불합격’과 ⑥ ‘홀수-짝수’가 상보 반의어에 속한다.
-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존재하는 반의어를 말하며, 이들 반의어는 상호 의존적이다. 보기의 반의어 쌍 중에서는 ② ‘형-아우’와 ④ ‘사다-팔다’가 관계 반의어에 속한다.

■ 채점 기준

- ㉠-㉢의 답을 각각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정답 중 번호를 하나만 쓰거나, 다른 번호와 조합된 답에 대한 부분 점수 없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①, ⑤	3점
㉡	③, ⑥	3점
㉢	②, ④	4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국어 · 문항 1

※ 다음은 학생이 쓴 학교 잡지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팬데믹 아포칼립스 장르물이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아포칼립스’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과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가 합쳐진 말이며, ‘팬데믹 아포칼립스 장르물’이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종말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소재로 한 여러 장르의 작품을 말한다. 팬데믹 아포칼립스 장르물에는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이 있는데, 특히 소설이 인기가 있다. 에밀리 세인트존 맨델의 「스테이션 일레븐」과 같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대표작 외에 젊은 작가들의 신작도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감염병과 세상의 종말을 다룬 이러한 소설에 열광할까? 그것은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모습에서 팬데믹 상황에 대처했던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하나같이 감염병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감염병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감염병과 맞서 싸운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팬데믹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던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떠올랐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물론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에 빠지다 보면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인간이 결국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주는 동시에, 인간의 능력을 과신해 온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이 우리 사회에 던져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 보면 좋겠다.

1. <보기>는 제시문을 쓰기 전에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의 ㉠과 ㉡이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시오. [10점]

<보기>

감염병의 대유행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에 대한 글을 써 보아야겠다. 글에는 기본 정보로서 팬데믹 아포칼립스 장르의 정의 및 유형과, 이 중에서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를 밝히고,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야겠다. 그다음은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의 보편적인 내용과 소설에 담긴 메시지를 소개하고 ㉡이러한 소설의 유행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5점]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5점]

■ 예시 답안

- 제시문은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을 주제로 하여 그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잡지 글의 초고이다.
- 글의 저자는 글쓰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분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주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표적인 작품의 예를 들어 내용의 구체성을 높였다.
- 다음으로는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의 보편적인 내용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언급하는 한편, 이러한 소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와 그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

- 문항에서는 글 쓰기 계획 중, 내용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예시 부분인 “에밀리 세인트존 맨델의 「스테이션 일레븐」과 같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대표작 외에 젊은 작가들의 신작도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와, 예상되는 우려를 밝힌 부분인 “물론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에 빠지다 보면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를 찾도록 하였다.

■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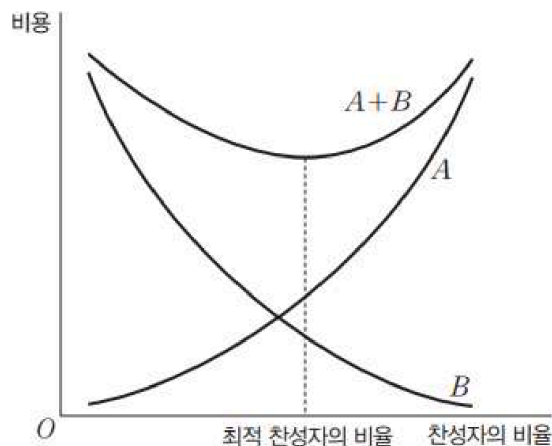
-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첫 어절: 에밀리	마지막 어절: 있다	5점
㉡	첫 어절: 물론	마지막 어절: 있다	5점

국어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 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 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톨록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것이 된다.



<그림>

<그림>에서 세로축은 의사 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곡선 A는 의사 결정 비용을 의미하며 곡선 B는 외부 비용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 결정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외부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의사 결정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은 A와 B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의 찬성자 비율이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

물론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지며, 이들 비용의 정확한 측정도 어렵다. 그렇지만 의사 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뷰캐넌-톨록 모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0점]

<보기>

공공 선택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라고 한다. 뷰캐넌과 톨록에 의하면, <그림>과 같이 공공 선택 과정에서 논의 중인 의안에 대한 찬성자 비율이 낮아질수록, (㉡)은/는 증가하고 (㉢)은/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두 비용은 (㉣)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조건>

- ㉠과 ㉢은 3어절로, ㉡과 ㉣은 2어절로 쓰시오.

㉠ _____ [3점]

㉡ _____ [2점]

㉢ _____ [2점]

㉣ _____ [3점]

■ 예시 답안

- 본 글은 공공 선택 이론을 뷰캐넌과 톨록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두 학자는 어떠한 의안에 대해 표결할 때 찬성 비율의 차이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두 비용에 의해 영향을 주며, 결국 표결은 이 두 비용의 합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보았다.
- 그들은 이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가장 효율적 의사 결정이며 이를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라고 칭했다.
- 다만, 이 두 비용은 모든 의결에서 항상 일정한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부의되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비용의 크기와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 채점 기준

- ㉠~㉣의 답을 정확하게(그대로)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단, 띄어쓰기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답으로 처리함(예: “외부비용”이나 “의사결정비용”은 정답으로 인정함)
- 또한, ㉡과 ㉢의 경우 “비용”을 쓰지 않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예: “외부” 혹은 “의사 결정”은 모두 “비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임)
- 하지만, 오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함(예: “의한의 성격”은 오답임)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정치적 의사 결정	3점
㉡	외부 비용	2점
㉢	의사 결정 비용	2점
㉣	의안의 성격	3점

국어 ·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선조 33년 봄, 파담자는 암행어사가 되어 충주를 순시하던 중 달천 강가에 수북이 쌓인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며 달천 전투 패배에 책임이 있는 신립 장군을 풍자하는 시를 여러 편 짓는다. 그 후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신 공*은 이렇게 말했지요.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요,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개나 돼지처럼 책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적이라면 너른 별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 낼 수 있거늘, 무엇 하러 높은 산 험준한 고개에서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지킨단 말인가?’

마침내 탄금대로 물러나 진을 치고는 용추 물가에 척후병을 보낸 뒤 거둬 자세히 명령하며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중략)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수레의 끌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과 큰 쇠뇌를 쏘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병사들이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은 채 핏덩이가 되고 말았으니, 당시의 일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습니다. 불세출의 재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건 어째서입니까?”

말을 마치고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비 오듯 눈물을 쏟았다.

잠시 후 실의에 빠진 한 사내가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발걸음을 주저하며 입을 우물거리다가 읊하고 말했다.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모였군요.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본래 장수 집안의 후예요, 귀한 가문 출신입니다. 기운은 소를 삼킬 만하고 말달리기를 좋아해서, 삼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무과에 급제했는데 장원이 못 된 것은 한스러웠지만, 백 보 밖에서 버들잎을 꿰뚫을 정도로 활을 잘 쏘아 실로 이광*의 활 솜씨를 이었다고 할 만했습니다. (중략)

오랑캐들의 실태를 꿰뚫어 보고 군대를 운용하는 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서, 처음에는 적장의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채찍질할 일만 생각했지, 문을 열어 적을 끌어들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마복군의 아들 조괄*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의 계책만 나뻐던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다. 어리진(魚麗陳)*을 펼치기도 전에 적의 매서운 선제공격을 받았습다. ‘먼저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는 말처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거늘, 병사들이 앞다투어 강물로 뛰어들기에 이르렀으니 대사를 이미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후략)

- 윤계선, 「달천몽유록」

*신 공: 조선 중기의 무신 신립. 신립은 용맹한 장수로 이름이 높았지만,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을 막다가 크게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재갈을 물렸습니다: 공격할 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군졸의 입에 나무를 물리던 일을 말함

*이광: 중국 한나라 때의 장군. 활을 잘 쏘았던 것으로 유명함

*마복군의 아들 조괄: 마복군은 중국 전국 시대 조나라의 명장 조사를 가리킴. 조사의 아들인 조괄은 평소 전쟁을 가벼이 여겨 아버지의 근심을 샀는데 훗날 조괄이 장군이 된 후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죽었음

*어리진: 물고기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둥글고 긴 대형이나 진법

3. <보기>는 제시문에 나온 인물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0점]

<보기>

죽은 병사들	사내(신 공)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장수의 무능에 두고 그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세간의 평판을 언급한다.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자신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운명에서도 찾고 있다.

<조건>

-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시오.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5점]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5점]

■ 예시 답안

-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와 <조건>을 참고하여 제시문을 읽고 해당하는 말을 찾아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보기>에 나온 죽은 병사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장수의 무능에 두고, 이를 부각하기 위해 세간의 평판을 언급한다. 제시문에서는 죽은 병사들이 “불세출의 재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세간의 평판을 언급한 부분에 해당한다.
- 사내(신 공)은 <보기>에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자신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운명에서도 찾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시문에서 “사람의 계획만 나뉘던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신 공은 전쟁 패배의 원인이 자신의 실수와 불가피한 운명에 있다고 보고 있다.

■ 채점 기준

-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첫 어절: 불세출의, 마지막 어절: 어째서입니까?	5점
㉡	첫 어절: 사람의, 마지막 어절: 않았습니다	5점

2025학년도 자연계열

국어 ·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다.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인해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별하였다.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무한이고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여 1씩 계속 커진다면 이를 계속 세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무한하다고 보았다. 무한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므로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중세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지하였다.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의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 이루어졌다. 칸토어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 수인 기수를 제시하였다. 칸토어는 두 집합 A, B가 일대일 대응이 되면 집합 A, B는 같은 기수를 가지며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두 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에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일대일로 대응한다. 1은 2와, 2는 4와, 3은 6과 짝이 지어지는 식이다. 이러한 대응이 무한히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일대일로 대응한다. 따라서 두 집합의 기수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한다.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고,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을 통해 두 집합이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칸토어는 대각선 논법을 통해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일대일 대응은 되지 않으며,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기 때문에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인 것이다. 한편, 칸토어는 모든 무한 중에서도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정의하였다. 칸토어는 절대적 무한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절대적 무한을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 무한만 인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부정했다. 무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르면 자연수는 (㉡) 무한에 해당한다. 반면, 칸토어에 따르면 모든 무한 중에 가장 큰 무한은 (㉢) 무한이다. 19세기 말 수학자 칸토어는 (㉣)을/를 통해 자연수의 집합과 유

리수의 집합이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칸토어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중에 가장 큰 무한은 (㉔)의 집합이라고 주장했다.

- ㉑ _____ [2점] ㉒ _____ [2점]
 ㉓ _____ [2점] ㉔ _____ [2점]
 ㉕ _____ [2점]

■ 예시 답안

- 본 글은 유한의 반대인 무한의 수에 관한 두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토어의 연구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 글의 흐름은 유한의 반대로 무한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무한의 두 가지 유형,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한 현실적 무한에 관한 칸토어의 연구 결과로 이어진다.
- 두 학자가 수행한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적 무한을 인정하고 이를 연구했다는 점과 칸토어는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증명했다는 점이다.
- 칸토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무한의 두 가지 구분에 더해 가장 큰 무한은 절대적 무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신의 영역이라고 명시한다.
- 칸토어는 또한 현실적 무한 중에 가장 큰 무한은 실수의 집합이라고 주장한다.

■ 채점 기준

-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단, ㉔의 경우 띄어쓰기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답으로 처리함 (예: “대각화증명”은 정답으로 인정함)
- ㉔에서 주의할 점은 “대각화 증명”이 아니라 “대각선 논증”은 명백한 오답이라는 점임. 대각선 증명은 대각화 증명의 반대 논리로 대각화 증명과 명확한 차이가 있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㉑	잠재적	2점
㉒	잠재적	2점
㉓	절대적	2점
㉔	대각화 증명	2점
㉕	실수	2점

국어 ·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招魂)」

2.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0점]

<보기>

이 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 절차인 ‘고복의식(梟復儀式)’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화자는 하늘과 가까운 (㉠)에서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시적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다. 또한 화자는 ㉢이승과 저승을 뜻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절망을 탄식한다.

<조건>

- ㉠은 2어절로 쓰시오.
- ㉡과 ㉢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각각 쓰시오.

㉠ _____ [3점] ㉡ _____ [3점]

㉢ _____ [4점]

■ 예시 답안

- 본 문항은 <보기>와 <조건>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본 문항의 <보기>에서는 화자의 공간적 위치, 감정이입,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야 한다.
- <제시문>에서 화자의 공간적 위치가 나타난 부분은 ‘산 위’이다.
- <제시문>에서 화자의 감정이입이 드러난 부분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시적 대상인 사슴에 이입하여 표현한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제시문>에서 화자는 이승과 저승을 뜻하는 시어인 ‘하늘’과 ‘땅’을 통해 자신의 절망을 탄식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행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이다.

■ 채점 기준

- ㉠, ㉡은 시행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띄어쓰기가 안 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산 위 (산 위에서도 정답)	3점
㉡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3점
㉢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4점

2024학년도 기출(계열 미표기)

국어 · 문항 1

[1] 학생이 쓴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2학년 학년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것은 2학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1학년이 2층, 2학년이 3층, 3학년이 4층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2학년 학생들의 외국어, 음악, 과학 등 과목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이동 수업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선택 과목 교실이 주로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어 2학년 학생들의 동선이 길어졌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1층과 3층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교실 근처로 자주 이동하다 보니 대화 소리, 발소리 등 각종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층에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이 일로 인해 특별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학년과 1학년이 학급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층을 맞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 2학년과 달리 이동 수업보다는 학급 교실 내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주로 1학년이 사용하는 음악실과 미술실이 3층에 있어서, 건의드리는데 층을 바꾼다면 1학년 학생들의 동선도 현재보다 짧아져서 편리해질 것입니다.

다소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건의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조건>은 제시문을 수정할 때 참고할 사항이다. <조건>의 ㉠과 ㉡을 적용하여 수정해야 할 문장을 [A]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각 5점]

<조건>

- 화제의 범위를 좁히고 ㉠화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한다.
- ㉡필수 문장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면 수정한다.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 제시문은 2학년 대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생 불편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다.
- 이 학생은 2학년은 3층을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나 변화된 교육과정에서 2학년 선택 과목 교실이 주로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어 쉬는 시간 동안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 학생은 이러한 불편이 2학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학년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학생은 해결 방안으로 2학년과 1학년이 층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며 독자(교장 선생님)를 설득하고 있다.
- 문항에서는 학생의 건의문 초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도록 하였다. 특히 화제와 관련 없는 내용과 필수 성분이 생략된 문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채점 기준

-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첫 어절: 하지만, 마지막 어절: 않습니다.	5점
㉡	첫 어절: 또한, 마지막 어절: 상황입니다.	5점

국어 · 문항 2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일 처음 시집을 제 가산(家産)이 만금(萬金)이라
 마당에 노적(露積)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 행실 바이없다
 다담상(茶啖床)의 허다 음식 생룰 먹기 괴이하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부녀(座中婦女) 어이 알아 떡 조각을 집어 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새택 행실 전혀 없다
 입구턱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데없고
 아까울사 대단(大緞)치마 얼릉덜릉 흥악하다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삼일을 지낸 후에 형용도 기괴하다
 백주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며
 둘이 앉아 흥보기와 문틈으로 손 보기며 담에 올라 시비 구경
 어른 말씀 토 달기와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한 이 둘째로다
 기억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
 앓음앓음 용렬하고 걸음걸음 망측하다

- 작자미상, 「복선화음가」

2. <조건>에 맞는 시행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조건>

- 시적 대상의 '예의 없고 정숙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시행
-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는 시행
- 한 행을 쓰시오.

■ 예시 답안

-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경북 안동 지방에서 유행한 「복선화음가」이다.
- 제시문은 「복선화음가」의 일부이며,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신부의 경박한 행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부가 시집온 첫날부터 예의 없고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잃고 있다.
- 문항에서는 설의법에 해당하는 의문형 어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 행을 찾아 답안에 작성해야 한다. '기억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라는 시행은 배움이 없음에 대한 비판이므로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기에 정답이 될 수 없다.

■ 채점 기준

-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 오답 처리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10점

국어 · 문항 3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증강 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에 가상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 주는 기술이다. 증강 현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로 이분화되어 각각 현실과 가상으로 대응되었던 세계의 이미지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결합하여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경험하는 사용자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의 물체와 상호 작용하여 확장된 공감각적 몰입과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 시야를 차단하는 헤드셋 및 가상 환경을 조종할 수 있는 특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현실 세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몰입형 가상 환경과 달리, 증강 현실은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가상 환경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환경을 조정하는 비몰입형 가상 환경을 위주로 구현된다.

증강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증강 가상과 혼용되거나 비교된다. 이 둘은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인 혼합 현실에 해당된다. 증강 가상은 가상 환경을 중심으로 현실 이미지를 합성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주로 몰입형 가상 환경에 기반하여 구현되므로 증강 현실에 비해 몰입도가 높다. 반면 증강 현실의 중심은 현실의 환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보완하므로 현실과의 정합 여부가 중시된다. 이 경우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 환경에 필요한 가상의 정보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증강 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이미지 혹은 영상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 혹은 영상을 겹쳐서 현실 환경과 가상 이미지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는 가상 환경과 합성된 현실 이미지 간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증강 가상과 대비를 이룬다.

현존감이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환경을 현실처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미디어와 관련한 최근의 가상 환경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상 환경에 몰입한 상태에서 가상 환경 속에 자신이 실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현존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정되는데, 개인의 감각을 통해 가상 환경을 현실 공간처럼 느끼는 감각적 현존감, 가상 환경이 사용자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 환경을 현실 공간처럼 느끼는 공간적 현존감, 가상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나 캐릭터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현실 공간에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현존감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사회적 현존감은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과의 소통이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유사 사회적 상호 작용, 매개된 사람과 현실 공간 속에서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장소적 실재감,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과 소통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매체 경험에 의해 유발된다.

현존감은 사람이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지를 다루는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현존감의 세 유형은 공간에 대한 인지 요소인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과 연결된다. 감각적 현존감은 인간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체적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간 인지 요소는 체험성이라 할 수 있다. 공간적 현존감은 콘텐츠가 만드는 영역을 통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영역성을 통해 공간을 인지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회적 소통을 통해 공간에 존재함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존감은 사회성과 연결된다.

3. <보기>는 제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증강 현실은 현실 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와 가상 세계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기술로 현실과의 (㉠)이/가 중요하다. 증강 현실이 여러 측면에서 증강 가상과 혼용되는 이유는 증강 현실과 증강 가상이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강 가상은 몰입형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현실 이미지를 합성하여 보여주므로 증강 현실보다 몰입도가 더 높다. 한편 현존감이란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하여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가상 환경 속에 자신이 실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이 중 공간적 현존감은 공간 인지 요소 중 (㉢)와/과 관련된다.

㉠ _____ [3점] ㉡ _____ [3점] ㉢ _____ [4점]

■ 예시 답안

- 주어진 제시문은 증강 현실의 정의 및 증강 현실과 혼용되기 쉬운 증강 가상과 증강 현실의 비교, 그리고 증강 현실을 심리학적 공간론과 공간 인지 요소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 1문단은 증강 현실의 정의와 증강 현실이 어떠한 가상 환경(몰입형 가상 환경 대 비몰입형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구현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 2문단은 증강 현실과 자주 혼용 혹은 비교되는 증강 가상과 증강 현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 3문단은 현존감의 정의 및 3가지 차원(감각적 현존감, 공간적 현존감, 사회적 현존감)을 기반으로 증강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 4문단은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하여 공간에 대한 3가지 인지 요소인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이 현존감의 3가지 차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 문항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기>에서 각 부분에 들어갈 정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채점 기준

- ㉠~㉢이 아래의 답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정합 여부	3점
㉡	혼합 현실	3점
㉢	영역성	4점

국어 · 문항 4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 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떼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 장사를 시켜서 풀어 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佛經)보다는 암만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 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 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제사 내려오냐?” /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던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가름한 얼굴에, 흰자위 검은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찢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띤 눈으로 집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나와서,

“체 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체 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손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구례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 볼 참이라는데 어제저녁에 화갯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체 장수의 무남독녀인데 영감이 화갯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중략)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물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 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줄 대로 해라.” /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김동리, 「역마」

* 명도(明圖) :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다른 여자에게 신이 내려서 김홍화복을 말하고, 온갖 것을 잘 알아맞힌다고 함.

4. <보기>는 제시문에 나타난 소재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0점]

<보기>

소재	소재의 의미
책 장사(책전), (㉠)	성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기의 역마살을 떼기 위해 시킨 일
사마귀, (㉡)	옥화가 계연과 자신이 자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	대를 이어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의 운명을 상징하는 공간

<조건>

-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 ㉠과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쓰시오.

■ 예시 답안

문항 4

㉠: 중질 ㉡: 명도 ㉢: 화개 장터

풀이

- 이 작품은 역마살로 표상되는 한국적 운명관을 바탕으로 생의 본질을 탐구한 김동리의 「역마」이다.
- 제시문에 나온 ‘책장사(책전), 중질’은 성기에게 주어진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거스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마귀, 명도’는 옥화와 계연이 자매이자 혈연관계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화개 장터’는 장돌뱅이들이 모였다가 떠나는 곳으로 이 작품에서는 대를 이어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의 운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채점 기준

- ㉠,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 ㉢의 순서가 바뀌면 오답 처리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중질	3점
㉡	명도	3점
㉢	화개 장터	4점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